

혁신도시 골프장 공사 안전조치 미흡 논란

인도에 고압선 방치 위험하고 장마철엔 토사 유출 우려 수방대책 미흡 농민들 불안...건설사 "3중 물막이 안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내 골프장 건설 공사가 한창인데 인근 아파트 주민과 농업인들이 미흡한 안전조치에 따른 사고발생과 농업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골프장 시공·시행사인 B건설은 사업비 1169억을 투입해 혁신도시내 송림리와 신도리 일원 72만664㎡(22만평)에 정규·대중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주민들, 보행안전 위험·비산먼지 호소=공사현장 설치된 비산먼지 안내판에는 '방지(역제)시설의 설치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돼 있지만 실제 공사장 내에 설치된 가설 방진망은 440m에 불과하다.

또 혁신도시 사거리에서 송림저수지 입구까지 2km 공사 구간의 경우 인도 옆에 5m가 넘는 낭떠러지와 인공으로 조성된 호수가 있지만 안전펜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또 인도에 가깝게 3m가 넘는 흙 둔덕이 만들어져 있어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인도와 도로로 유출될 우려가 높다. 최근 내린 적은 비에도 토사가 인도와 도로로 흘러내렸다.

특히 버스 승강장이 위치한 진흥길 삼거리에서 B건설 현장사무소까지 50m 구간에는 인도를 따라서 고압선이 방치돼 있는 상태이다.

공사현장에서 200m 떨어진 LH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김모(여)씨는 "서울에서 아이들이 아토피가 심했는데 남편을 따라 공기 좋은 나주에 내려왔다"며 "아파트 바로 앞에서 제대로 된 가설 방음벽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건조한 여름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스럽다"고 하소연했다.

◇농업인, 농업용수 부족 우려=골프

장 공사현장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송림리·등수리·매성리 농업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송림마을 강덕진 이장은 "B건설 측이 임시 수방(水防) 대책을 해 놓았지만 장마철에 많은 비가 일시에 내리게 되면 토사법랑은 볼 보듯 하다. 골프장에서 토사가 밀려와 친환경 하우수단지를 덮치지 않을까, 골프장 완공 후에도 골프장 조경수가 하우스동 햇빛을 가려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프장에 소나무 재선충 살충제 등 농약을 살포할 경우 농약성분이 날아와 친환경하우스 단지인증이 취소되면 어쩌나 싶다"며 "특히 안전 그물망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흩어나 골프공이 넘어와 인명 피해나 비닐하우스를 파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B건설은 도로 옆으로 5m 흙 둔덕(마운드)을 만들어 5~15m의 소나무 등을 식재하고 그물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더욱이 농업인들은 농업용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골프장이 문을 열게 되면 송림저수지의 물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물 부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농업인들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지하수 관제개발은 못하게 돼 있지만 만약 나중에 골프장 측이 주변에 지하수 관정을 팔 경우 지하수가 바닥나 주변 하우스농사가 마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건설 측은 송림저수지 용수가 바닥나면 나주호 물을 채워 쓸 수 있게 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건설 관계자는 "수방 대책은 3중으로 물막이를 해 놓아 큰 비가 와도 걱정할



인도를 따라서 쌓아 올린 골프장 공사현장 흙 둔덕(마운드). 주민들은 비산먼지 노출과 함께 폭우시 토사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흙으로 매워진 수로관. 많은 비가 내릴 경우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조그마한 수로관 몇 개가 수용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것 없다. 가설 방음벽은 환경영향 평가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햇빛 가림이나 농약성분은 농가에 피해가 안 가

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연극 통해 공직자 청렴 의식 제고 눈길

나주시가 연극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없는 청렴나주 실현과 청렴마인드 정립을 위한 공직자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직원들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성실·청렴 의무준수,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 등을 실천해 '깨끗한 희망나주'를 구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좋은습관 창조원'이 청렴을 주제로 한 연극 '갈판질판'을 무대에 올렸다. 청렴 연극은 딱딱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청렴교육을 웃고 즐길 수 있도록 해 구성해 흥미를 끌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 중심의 연극을 통해 공직내부에 청



연극 '갈판질판'이 무대에 올랐다. 청렴교육을 웃고 즐길 수 있도록 해 구성해 흥미를 끌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 중심의 연극을 통해 공직내부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나주시가 청렴도 상위권 지자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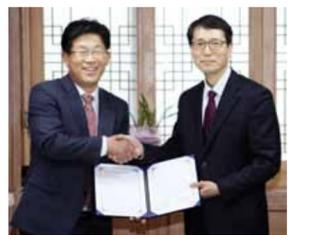
기업 투자유치 협력...나주시-산업단지공단 양해각서

나주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이하 산업단지공단)이 지난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산업단지 관리·지원 선진화 및 기업투자유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와 산업단지공단의 업무협약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과 나주 혁신산단과 신도산단 등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나주시는 산업단지 현황 제공 및 홍보,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연구사업 발굴 공동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개발·분양 활성화 시스템 지원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사업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성장 종합 지원서비스 지원 ▲인력양성 협



나주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강인규 시장은 "혁신산단과 신도산단에 기업유치는 물론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공단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전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옛 기록물 DB 구축 박차...나주시-동신대 협약

나주시와 동신대학교가 나주시역 옛 기록물 구축을 위해 손을 잡았다.

나주시와 동신대 지역문화콘텐츠 기획인력양성사업단은 지난 13일 시청에서 나주 옛 기록물 DB(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인규 시장과 동신대 지역문화콘텐츠 기획인력양성사업단장 이정호 교수, 나비센터 조성사업 총괄기획자 김경우 교수 등이 참석했다.

나주 옛 기록물 DB 구축사업은 나주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과 필름 등 시대별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면서 기록물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 검색 및 열람을 쉽게 해 행정 능률을 높

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DB 구축사업은 동신대 지역문화 콘텐츠 기획인력양성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대사 사진자료 디지털화 및 아카이브 자료구축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시는 사진과 필름을 제공하고, 동신대 사업단은 제공받은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한 후 원본 사진과 디지털 파일을 반환하게 된다.

시는 동신대와 협약 체결로 42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고, 동신대는 지역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혁신도시 통학 불편 해소 위해 시청 직원 통근 버스 투입

나주시가 혁신도시 공동아파트 입주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청직원 통근 버스를 통학용으로 투입했다.

하지만 나주시의 혁신도시 교통대책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혁신도시 공동아파트 입주와 학생들

의 등·하교 교통문제가 예상돼 왔음에도 시가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놓지 못해 혁신도시 주민들이 고스란히 불편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나주시는 "우미린 아파트 1078세대가 지난 10일부터 입주를 시작함에 따라 초·중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시청 버스를 긴급 투입하게 됐다"고 배경

을 설명했다. 시는 대중교통 노선이 확정돼 운행되기 전까지 시청 버스 1대를 우미린 아파트에서 빛가람 초등학교까지 등교가 이뤄지는 오전 2차례 운행하고 있다.

시가 직원들의 통근버스를 학생 통학 버스로 투입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18일 이뤄진 나주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에서

빛가람동 주민들이 학생들의 통학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

현재 빛가람 초등학교의 경우 나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에듀버스 3대가 운행 중이지만, 전체 학생을 수송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증차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혁신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중이어서 빠르면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대중교통이 투입될 전망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200억 이상 200만 원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최대 5년 연금리: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 (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상임의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유리지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